

갈등상황으로 알아보는 나의 성격 유형!

업소에서 일하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사람 관계에서의 갈등!

가게 주인과 돈 얘기나 오늘 신다고 말해야 할 때, 아가씨들 사이의 눈치싸움, 손님과의 힘겨루기까지... 이럴 때 당신의 대처법 유형을 알아봅시다.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한 사람을 떠올리세요. 맞다고 생각되는 칸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세로 방향으로 동그라미가 많은 곳의 결과를 확인하세요.

상대방과 의견이 부딪힐 때 나는...					
▼	상대방 마음이 좀 상하더라도	내 할 말을 하되 상대방 말도 들어는 본다.	내 말을 마치고 나서 상대방 말도 열심히 듣는다.	상대방 마음이 상할 말은 하지 않는다.	자리를 피한다.
▼	내가 할 말은 한다.				
상대방과 내 사정이 다를 때 나는...					
▼	내 형편 따라 하는 게 우선이다.	내 형편대로 하되 상대방한테 양보할 건 한다.	내 형편도 이해시키고 상대방 입장에 이해하려	나보다는 상대방 형편에 맞춘다.	일단 알았다고 하고 넘어간다.
▼	상대방과 해결할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	상대방과 사이가 틀어지더라도 문제해결에 집중한다.	서로 좀 포기하고 받아들이 수 있는 선에서 해결한다.	서로한테 둘 다 좋은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쓴다.	문제해결이 안되더라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한다.	상대방과 마주칠 일을 최대한 안 만들려고 한다.
▼	경쟁형	타협형	협력형	순응형	회피형

경쟁형 겁 없이 배짱과 고집으로 승부하는 여전사파. 자기 판단만 믿다가 손해 보지 않도록 주위 믿을 만한 친구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보시는 것은 어떨지.

타협형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각자 갈 길 가자. 융통성 있는 실속파입니다. 나한테 정말 중요한 건 절대 양보하지 마시길...

협력형 대화로 해결하려는 노력파 유형입니다. 근데 세상에는 이상한 인간도 참 많다는 거... 미친X은 똥 밟았다 생각하고 빨리 피할 줄도 알아야.

순응형 나보다는 상대를 먼저 배려하는 당신. 고마운 줄도 모르고 이용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다 맞춰주고 있지는 않나요. 더 이기적으로! 더 자기주장! 내세우기를 권합니다.

회피형 요령 있게 몸 사리는 것이 당신의 장점. 너무 회피하다가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쁜지 좋은지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게 뭔지까지 무감각해 지지는 마세요.



별별신문

18호

| 발 행 일 자 | 2015년 11월 25일

| 발 행 인 | 별별신문_ 가루, 용, 유나, 별, 알렉스, 완두

별별신문은 유흥업소 종사자를 위한 신문입니다. 노래방도우미, 성매매 집결지, 룸살롱, 단란주점, 키스방, 보도방, 티켓다방, 안마시술소 등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신문으로서, 여성들의 인권과 권리 찾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 무서운 간경변, 미리 알아보고 예방해요!

간경화 초기증상 체크리스트

(✓) 몸이 무기력하고 전과 비교해 점점 쇠약해짐을 느낀다.

(✓) 폭 쉬어도 좀처럼 피로가 가시질 않는다.

(✓) 최근 들어 식욕이 많이 떨어지고 소화가 잘 안 되어 더부룩한 증상이 자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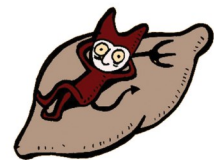
(✓) 과거에 간염을 앓았던 적이 있거나 가족 중 간질환

을 앓은 사람이 있다.

(✓) B형 간염 보균자이다. (✓) 당뇨, 고혈압이 있다.

(✓) 불면증이 있다. (✓) 피부/눈/입 등이 건조하다.

* (✓) 항목이 많을수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경변은 간염 때문에 정상적인 간세포가 손상되어 섬유조직으로 변하고 간이 쪼그라드는 질환입니다.

예방법

1. 간염 백신 접종이 우선.

2. 술 줄이고 성관계 시 콘돔 사용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나 환자는 술과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성관계를 통해서도 간염이 전염될 수 있으므로 꼭 콘돔을 사용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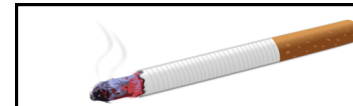
건강검진 지원해 드립니다

010-8230-6279

짬을 내 건강검진을 받아보세요. 아무 이상 없으면 안심되어 좋고, 이상이 발견되면 조기에 치료할 수 있으니까요.

심리상담 연결해 드립니다 010-8230-6279

마음이 힘들어서 끔찍 앓고 있는 언니들,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데도 잠을 잘 수 없어 괴로워 하는 언니들, 답답함이 목까지 올라오지만 해소할 데 없어서 속앓이 하고 있는 언니들, 무기력하고 자꾸 눈물만 나오는 언니들 모두모두 언제든 연락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 물론! 전문가와 연결해드립니다.



금연필패(必敗)담



이놈의 담배. 원래 몸에도 안 좋지만 세금이 오르면서 내 통장에도 안 좋은 물건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금연을 꼭 실패하는 걸까요?

진이언니

술 한 잔 하면 피게 되고, 할 말 없으면 피게 되고, 주변에서 많이들 피고, 스트레스 받으면 피게 되고.. 그래서 나는 한 번도 끊을 생각을 안 했어.

복경언니

일을 하면 필 수 밖에 없지. 주변에서 다 퍼대는데. 나는 일 쉬고 고양이 키우느라 끊었어. 고양이한테도 간접흡연이 안 좋다더라고. 일하면서는 안 필 수가 없어. 그리고 손님이 담배 많이 퍼. 담배 피는 손님 그 냄새 맡으며 괴로워하느니 같이 피는 게 낫지.

민지언니

밥 먹고 나서 이럴 때보다도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외로움도 아니고 가

가슴이 뻥하니... 뭐라고 말 못하겠는. 이럴 때 꽂히면 무조건 펴야 해. 가게에선 손님 있어도 스트레스, 없어도 스트레스. 하루에 돈 몇 만원 벌어서 담배만 사는 거예요. 인간관계 때문에 피우는 건 어릴 때 애기고, 사십 대 지나 오십 대 다가오니 돈 스트레스 받지. 가게부 적으면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때 꼭 담배 한 개피 피요.

현정언니

담배 끊으려고 해본 적? 난 없어!! 심심할 때 퍼. 눈뜨자마자 피고, 밥 먹고 나면 피고, 아침에 잠 깨려고 피고. 습관이지 뭐. 못 피면 아픈 것 같애. 스트레스 오잖아. 막 조금해져. 피고 싶다는 조금증. 담배는 주변에서 피면 백퍼 피게 돼있는 것 같아.

정아언니

내가 지하에 일했고 지상에서도 일했잖아. 지상에선 좀 안 피게 되는데 지하에선 손님 없으면 계속 피는 거야. 바깥이 보이냐 안보이냐의 차이지. [유나]

꼭 필요한 화류계 정보들이 가득! 네이버 블로그에서 '화톡'을 찾아주세요!

화 톡





언니들에게 묻다! 주인을 대하는 그녀들의 방법

인터뷰

‘갑’들에게 을을거리는 우리네 인생살이... 언니들이 ‘을’이라면 손님들은 ‘갑’이요, 주인(사장, 실장, 마담 등등!)들은 갑인 듯 갑 아닌 듯 동료인 듯 사장인 듯 애매애매한 관계다. 때로는 내 돈 다 가져가는 나쁜 놈이고, 때로는 어려울 때 도와주는 비빌 언덕이 되기도 하는, 아가씨에게는 때려야 떨어 수 없는 존재들인 주인들. 언니들은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쌓이는 화류계 경력만큼 이 주인 저 주인 별별 주인을 다 겪어본 언니들의 말말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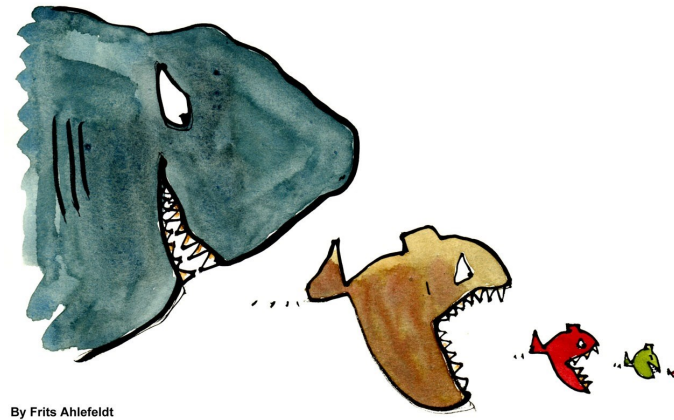
혜수, 32세, 룸살롱, 경력 12년

사장이랑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보단 실장이랑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근데 같이 밥 먹고 얘기할 때 사장이 아가씨에게 바라는 게 많으면 그 가게는 힘들더라고요. 출근시간을 지켜달라거나 손님 들어오면 반갑게 인사하라거나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따지는 사장은 귀찮게 굴어요. 그리고 만날 가게에 나와 있는 사장도!

아가씨들이 자기 기준이 딱 있고 그 이상을 강요하는 곳을 피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뭐 솔직히 좋은 사장 나쁜 사장을 고를 수가 있나요. 자리 나면 가는 거고 가서 좋은 사람이면 다행인 것뿐이지. 그냥 별로다 싶으면 여기저기 옮기는 거죠.

수민, 38세, 다방/노래방도우미, 경력 14년

지각비, 결근비에 대해 확실히 얘기하고 일을 해야 돼. 동네마다 어떻게 하는지가 다 다르니까 추라이 볼 때 그거부터 확실히 해야지. 특히 쉬는 날은 딱 박아야 돼. 한 달에 이틀이라고 하고서 아가씨들 끼리 조율하면 된다고 처음에 다들 말하는데 나중에 절대 그렇게 못 쉬어. 이런 게 쌓이다보면 지각비, 결근비 무는 거야. 근데 주인들 다 정확하게 얘기 안 할라 그러지. 두루뭉술하게 넘어갈라 그럴 때 최대한 확실하게 받아놔야 돼.



By Frits Ahlefeldt

태영, 41세, 바/클럽, 7년

가게 주인을 볼 때 나보다 젊은 애, 더 이쁘고 날씬한 게 좋더라고요. 장사도 더 잘 되고 주인애가 빠끼 해서 나도 소개시켜줄 수 있으니까. 그런 주인 밑에서 일하면 편하죠. 아가씨가 빠끼하면 소개 안 시켜주는데 주인은 빠끼해서 서로 같이 해먹자고 꼭 소개시켜 줘요. 꼭. 왜냐면 내가 돈을 벌어야 주인도 떨어지니까. 주인이 열심히 일하면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주인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큰소리만 쳐서 얄미워요. ‘야, 좀 빠끼해봐’ 이런 말도 예쁘게 안 하고 무뚝뚝하게. 주인이 부드럽고 그랬음 좋겠어.

지희, 36세, 바/클럽, 12년

그냥 들어가서 일 시작하면서 필요할 때 쉰다고 얘기해요. 인생 얘기도 하면서 친해지면서. 우리는 꾸미면서 사회생활이 아니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라 계획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잖아. 하고 싶은 말 하고 듣기 싫으면 시끄럽다고 소리도 지르고. 그냥 얘기하

고 신경 안 쓰고 남이사 뭐라고 하던 말던. 어쩌다가 가게 주인이 욕심 부릴 때도 있어요. 이 시간까지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면 손님이 있을까 봐. 그건 가게 주인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는 얘기하고 와요. 어쩔 때는 있어 주죠. 나도 기다린 시간이 있으니까.

전 주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대해주고 넌 참 잘 될 거라고 말이라도 한마디 더 해주는. 근데 그렇게 사람 좋아 보였던 주인이 내 돈 홀랑 다 떼먹었지.

chat

서진, 32세, 룸살롱/집결지, 경력 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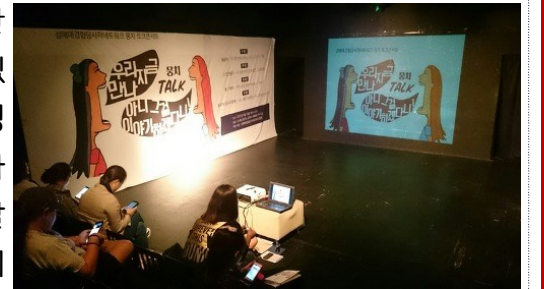
아가씨들에게 주인은 거머리야. 피 빨아먹잖아. 옛 같은 주인 엄청 많아. 민짜라고 돈 안주고, 성폭행하고. 폭탄주 안 먹겠다고 했다가 뺨 맞고. 들어가기 전에 뭐 조건을 어떻게 걸어. 그런 거 못 해. 뺨 때리지 말라 그래? 그냥 소문을 듣는 거지. 아는 아가씨들 통해서 그 가게 평이 어떤지. 저 사장 또라이다. 거기 들어가면 개고생 한다더라. 그런 데를 피하는 정도랄까.

월수 얼마라는 건 다 구라야. 그런 걸로 따질 거야? “수입 삼백이라 하셨잖아요, 왜 안 줘요” 그래? 주인은 “너 하기 나름이야”, “니가 못 해서 그런 거잖아” 그러지. 이런 업종에서 일하면서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좀 잘해주는 게 뭔 소용이야. 대놓고 악덕인가 아닌 척 하면서 악덕인가, 많이 등 쳐먹냐 덜 등 쳐먹냐 둘 중에 하나야. 주인들도 취미생활 아니잖아. 돈 벌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관계인거지. [용]

이 바 닥 뉴스

당사자 모임 뭉치 토크콘서트 / 성노동자 생존권 쟁취대회

지난 9월 23일 뭉치 토크콘서트에 다녀왔어요. 뭉치는 별별신문 통해 이미 소개 된 적 있어서 언니들도 잘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알려드리면, 2006년 성매매 당사자들이 모여 서로의 갑갑함을 나눴던 뜻 깊은 만남을 시작으로, 각 지역에 당사자 자조모임을 꾸려 "뭉쳐서 안 되는게 어딴니-뭉치"로 탄생한 전국모임이에요. 내년이면 벌써 10살이 되네요! 토크쇼가 있던 이날도 뭉치는 그 동안 쉬이 꺼내지 못했던 성매매 당사자의 경험을 나누는 자리로 꾸몄어요. 어떤 경험은 말하는데 있어 당사자들에게 꽤나 큰 용기와 책임을 요구하곤 하잖아요. 때문에 이날 뭉치가 꾸민 자리는 특별했어요. 뭉치는 성매매 당사자끼리 만이 아닌 열린 공간에 참여한 사람들과 함께 성매매 공간에서의 사람, 감정, 폭력, 차별과 낙인, 터득한 삶의 기술 등을 생생한 얼굴과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한편, 성매매 특별법 시행 11주년을 맞은 날이기도 했던 이날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선 한터 주최로 ‘9개 지역 집장촌 성노동자 생존권 쟁취 쉼기대회’라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어요. 그날 그 곳에 계셨던 언니들도 있으셨을 텐데요. 선글라스와 마스크, 빨간색 모자로 얼굴을 가린 1000여명의 언니들이 참석한 이 집회에서는 ‘성매매 특별법 위한 결정 촉구와 생계형·자발적 성매매를 인정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결의문을 통해 성매매 특별법 폐지 주장을 공고히 했어요. 또 최근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가 발표한 ‘성매매 당사자, 알선업자 등 관련 당사자 모두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성매매 전면 비범죄화 결정을 근거로 “정부는 엠네스티 권고 이행하라!”는 구호가 새로이 눈에 띄기도 했지요.

같은 날 성매매가 그린 상반된 풍경을 보며, 성매매 공간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언니들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책임 있는 얼굴들이 더욱 다양하고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완두]

